

힐 “6자회담, 내달 4일 이후 재개 가능”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20일 차기 6자회담이 내달 4일 이후 조속히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힐 차관보는 이날 아침 쇼타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회담한 뒤 기자들에게 “중국은 7월 초순에 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의장국인 중국 등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회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힐 차관보는 그러면서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에 재개되지는 않겠지만 그 직후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6자회담 재개에 앞서 북한이 초기단계 조치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7월에는 회담 참가국인 6대 외교적 협의로 바뀔 한달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힐 차관보는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 실무대표단이 오는 26일에는 방북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6자 외무장관 회담에 관해서는 오는 8월

“BDA 송금 완료...IAEA 대표단 26일 방북” 北 제외 5개국 6자회담전 비공식 회담 갖기로

2일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의 전후에 열릴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힐 차관보는 이에 앞서 이날 아침 기자들에게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관련 자금 송금 문제에 대해 “모든 것이 해결됐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북한과도 연락을 취하고 있음을 밝혔다.

힐 차관보는 이날 도쿄에 도착한 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신속히 영변 핵시설 폐쇄에 나서라고 촉구하면서 “오늘(19일) 러시아에 있는 북한 계좌에 BDA 북한 자금이 입금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힐 차관보는 북한에 대한 “에너지 지원

과 함께 북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검토중”이라며 “병원 등의 기관에 도움을 주는 방식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금지원에 관해서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과 미국, 중국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은 다음달 초 베이징(北京)에서 2·13합의 이행과 관련된 각국의 조치를 평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비공식 회담을 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6자회담에 정통한 정부 고위소식통은 20일 “비공식 회담은 6자회담의 동력을 유지하는 한편 북한이 취할 핵시설 폐쇄의 내용을 집중적으

로 평가하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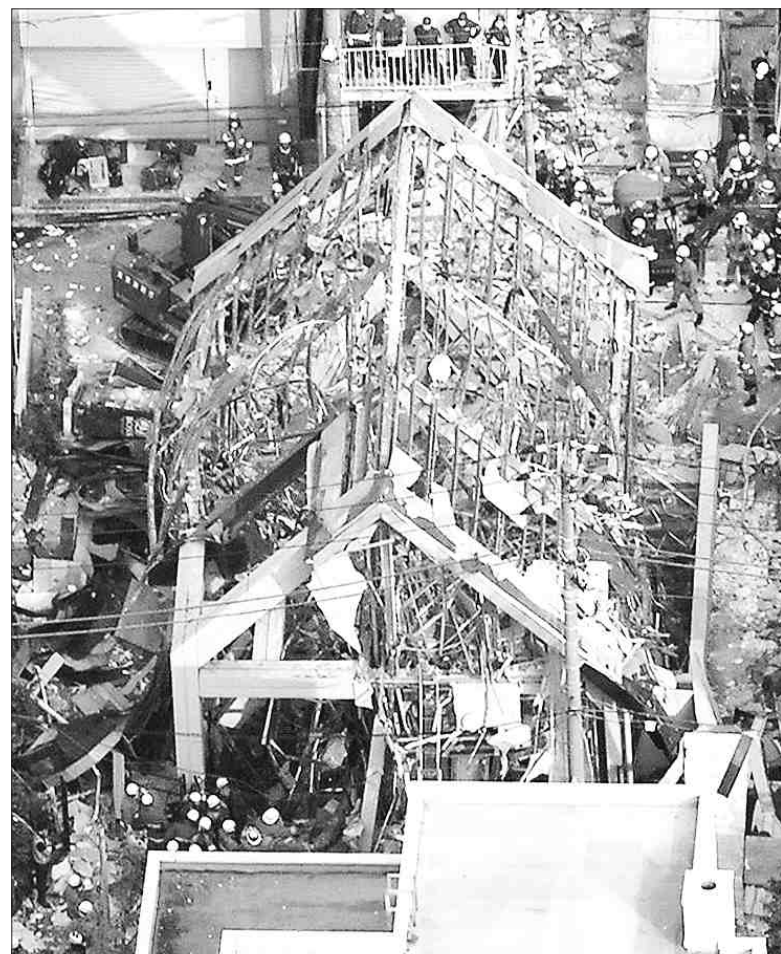
6자회담 참가국인 비공식 회담은 북한과 IAEA 실무대표단이 핵시설 동결·폐쇄·봉인 대상과 범위, 감시검증 방법 등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직후 베이징에서 개최되며 IAEA 실무대표단의 일정 등을 감안할 때 다음달 초 개최가 유력하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비공식회담에는 6자회담 의장국 중국과 한국, 미국의 참여가 유력하며 일본과 러시아까지 참여할 경우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5개국이 북한의 핵시설 폐쇄에 대한 평가를 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의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이 오는 8월2일 필리핀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을 계기로 6자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밝혀 7월초 비공식 회담과 7월 하순 정식 6자회담에 이어 8월초 외교장관급 회담으로 격상되는 방식이 관련국간에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쿄=연합뉴스

日 도쿄 여성온천 폭발...5명 사상



일본 소방관들과 경찰들이 19일 도쿄에서 폭발사고로 무너져 내린 여성온천 온천 건물 잔해더미 속에서 희생자나 매몰자가 있는지 수색하고 있다. 이날 폭발로 여성 1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했다. /연합뉴스



북한 주민들이 19일 압록강의 유람선에서 중국 라오닝성 단둥 지역을 바라보고 있다. /단둥포터=연합뉴스

“대북 식량지원 200만명으로 확대”

WFP, 9월부터

세계식량계획(WFP)은 오는 9월부터 북한 주민에 대한 식량지원을 200만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혜택을 받는 북한 주민이 늘어남에 따라 평양사무소 인원 증원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WFP 방콕사무소의 폴 리슬리 대변인은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를 통해 “호주와 스위스에 이어 한국 정부가 최근 2천만달러 이상의 대북 식량지원을 약속함에 따라 오는 9월1일부터 식량공급 수혜자 수를 2배 이상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리슬리 대변인은 “7~8월은 70만명에 대한 식량공급을 계속할 수 있을 만큼의 식량이 확보됐으며 9월부터는 북한 당국이 허가를 내린 50개 군(郡)의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 중인 여성 등 200만명에 대해 식량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FP는 2006년 4월부터 2008년 3월까지 2년간 총 1억2000만달러 규모의 대북 구호복구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마련해 북한 당국과 합의를 이끌어냈으나 외부 자금지원이 턱없이 모자라 그동안 70만명에게만 식량을 제공해왔다.

/연합뉴스

中 조폭, 군부와 결탁 장갑차 무장까지...

공안당국 일당 적발

최근 중국 허베이성 탕산시에서 군부와 결탁한 조직폭력단이 장갑차 등 불법무기로 무장한 채 갈취를 일삼고 경찰을 공격한 혐의로 공안당국에 붙잡혔다.

중국 신문들은 20일 비정부기구인 중국시민법률망을 인용해 부동산 및 광산개발인 화원그룹 회장이며 탕산시 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

인 양수관이 3월 경찰에 구속됐다고 보도했다.

중국시민법률망은 경찰이 최근 다른 조직원 40여명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장갑차 4대와 군용 짐차 3대, 소총 38정, 탄알 1만여발, 최루탄 12발 등을 압수했다고 말했다.

탕산시 공안국 당국자들은 이번 구속된 조직폭력배는 광산을 운영하는 기업가와 주민들을 소총

등 무기로 협박해 최근 몇년동안 모두 8억위안(1천억원)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시민법률망은 양씨가 최근 몇년간 공권력까지 우롱하며 일대에서 활개를 칠 수 있었던 것은 인근 지역 군부 연대장과의 특수관계를 이용해 군복과 장비를 제공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베이징=연합뉴스

美 공화당 대선후보 톰슨 돌풍

줄리아니 제치고 1위 부상

‘제2의 레이건’을 꿈꾸는 영화배우 프래드 톰슨 전 상원의원이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마침내 1위로 부상, 2008년 대통령 선거운동에서의 돌풍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의 여론조사 전문 온라인 매체인 ‘라스무센 리포트’가 지난 11~14일 공화당 예비선거 유권자 6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톰슨 전 상원의원은 28%

의 지지율로 그동안 부동의 1위였던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27%)을 앞질러 공화당 대선 후보 경쟁 선두자로 부상했다.

톰슨 전 상원의원은 일주일 전 실시된 같은 조사에서는 줄리아니 시장과 같이 24%의 지지율을 기록했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선두로 나섰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4%로 통계적 의미는 없으나, 톰슨 전 의원의 상승세를 다시 한 번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워싱턴=연합뉴스



불과 2주 전 조사에서는 줄리아니 전 시장의 지지율이 23%로 톰슨 전 의원(17%)을 상당한 차이로 앞섰다.

특히 톰슨 전 의원은 아직 공식 출마선언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더욱 큰 의미를 지닌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위안부 결의안 내달 중순 표결”

훈다 의원 밝혀

일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촉구하는 내용의 미국 하원 위안부 결의안이 내달 중순 하원 전체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마이클 훈다(민주, 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이 19일 밝혔다.

일부론 이만 3세인 훈다 의원은 공화당 의원들과 함께 지난 1월 일본 총리의 공식 사과를 촉구하는 ‘초당적’ 위안부 결의안을 발의한 인물이다.

그는 위안부 결의안이 다음 주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언제쯤 하원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내달 중순쯤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원 외교위는 오는 26일 결의안을 상정, 표결 처리하기로 했으며 결의안 지지서명 의원이 140명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이 없는 한 외교위에서는 무난하게 통과될 전망이다.

한편 훈다 의원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결의안 통과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연합뉴스

日, 신임 주한 대사에 시게이에 내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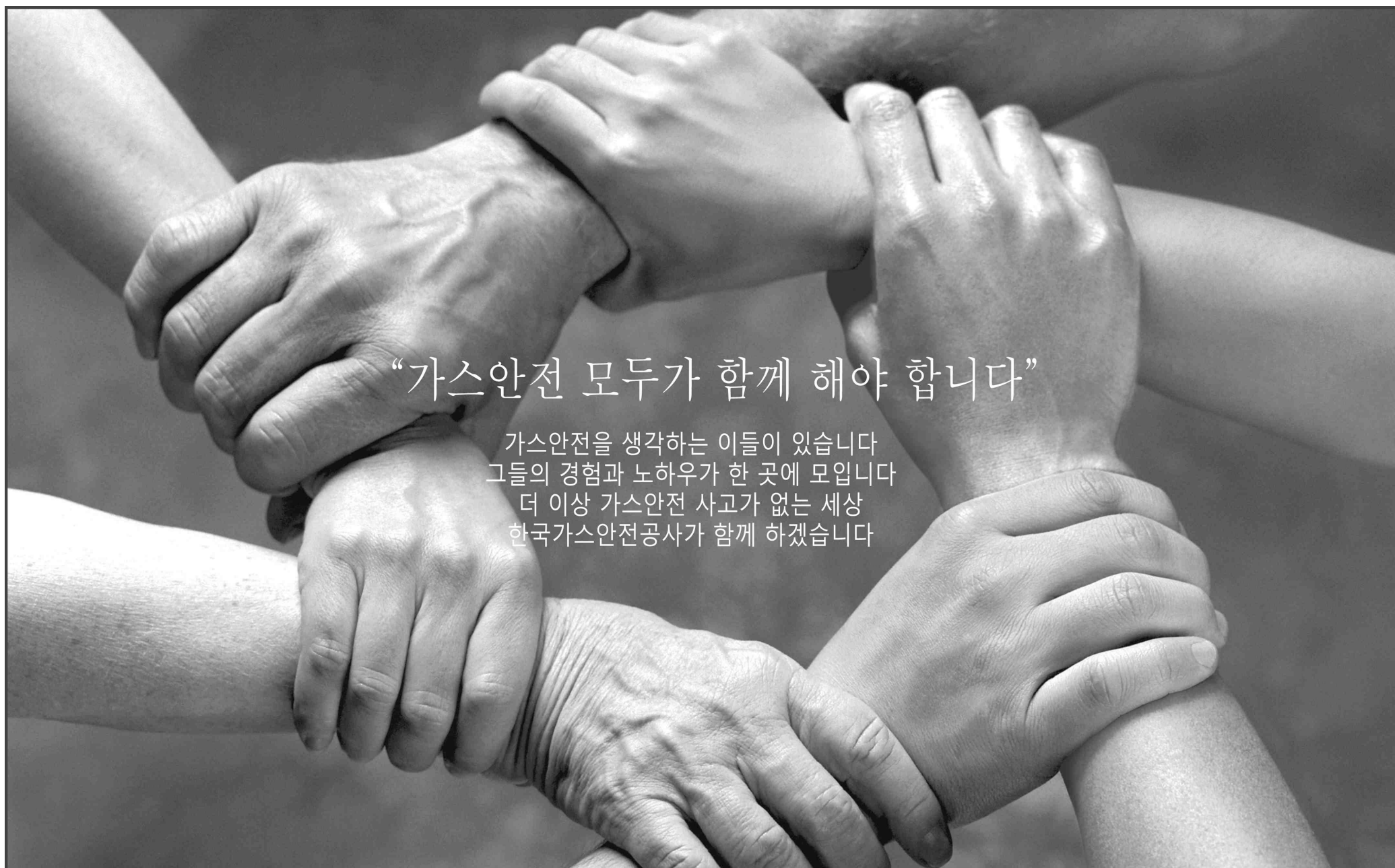
일본 정부는 오시마 쇼타로 주한 대사의 후임에 시게이에 도시노리(62) 오키나와 담당 대사를 내정했다.

20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주한대사에 시게이씨를 내정, 이미 한국 정부에 아그레망(주재 동

의)을 신청했으며 오는 8월 중 부임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시게이에 내정자는 히토쓰바시(一橋)대학을 졸업, 1969년 외무성에 들어온 뒤 주미대사관 공사, 중동아프리카 국장, 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 등을 역임했다.

/도쿄=연합뉴스



“가스안전 모두가 함께 해야 합니다”

가스안전을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한 곳에 모입니다
더 이상 가스안전 사고가 없는 세상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제14회 가스안전촉진대회

범국민 가스안전의식 고취와 가스산업 종사자들의 사기양양을 위해 가스안전촉진대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일시 : 2007. 6. 22 (금) 10:30
장소 : 센트럴시티 밀레니엄홀 6층
주관 : 한국가스안전공사
주최 : 산업자원부